사명대사 '유정교첩' 표충사로 환지본처

밀양 표충사 11월 28일 주지 접견실서 기증식

사명대사 경상도 총섭 임명
가치인정 위해 소장가 기증
사명대사 호국정신 홍보위해
내년 춘계향사, 특별전 마련

성낙두 경남지사장 snakdu@hanmail.net

호국영웅 사명대사를 경상도 총섭에 임명하는 내용이 담긴 교첩(임명서)이 표충사에 전달됐다.

호국성지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는 11월 28일 주지 접견실에서 '사명당 유정 교첩' 기증식을 개최했다.

'사명당 유정 교첩'은 사명대사를 임진왜란 당시 경상도 총섭(승병을 통솔하는 역할)으로 임명하는 내용이 담긴 임명서다. '사명당 유정 교첩'은 그동안 김상자(70 · 부산 연제구) 씨가 소장 하고 있었다. 김 씨는 고미술을 좋아한 선친이 간직하던 것을 물려받아 문화재로 가치를 인정받고 뜻깊게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하게 됐다.

김 씨는 "섭섭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기쁘다"며 "부모님이 물려주셨지만 더 가치 있게 보관되고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었다. 이제야 제자리로 돌려보낸 심정이다. 후대에 많은 분들이 호국애민정신을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기증에 앞서 '사명당 유정 교첩'은 2013년 2월 진품명품 프로그램에서 감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00만원에 해당하는 감정가를 받았다.

김 씨는 "당시 중요성을 몰라 가치를 알고 싶어 들고 나갔는데 표충사 교지를 들고 나와 비교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그 진가를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기증식에는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 기증자 김상자 씨를 비롯해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송천 스님, 김종민 경상남도 문화재전문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주지 진각 스님은 "교첩이 돌아온 것을 보니 마치 사명 스님이 돌아오신 느낌이 든다. 이번 기증식을 계기로 사명 스님의 애민정신과 호국의 얼이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국성지 밀양 표충사는 11월 28일 주지 접견실에서 '사명당 유정 교첩' 기증식을 개최했다.

김종민 경상남도문화재 전문위원은 "임명문서 가운데 사명당에 대한 내용은 국내에서 유일하다"며 유정 교첩의 가치를 언급했다. 이어 "전쟁 중이라 비변사가 직권으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사명당 유정 교첩'은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634호이다. 유정 교첩은 조선시대 대선(大選, 승과에 합격한 스님이 처음 받는 법계)인 사명당 송운(사명)대사를 경상도 총섭에 임명한다는 것으로, 선조 26년(1593) 8월에 비변사가 왕명을 받아 발급했다. 이 문서는 당시 긴박한 상황을 알려주는 객관적인 자료로 중요도가 높다. 〈조선왕조실록〉에도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선왕조실록〉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7일 계축 6번째 기사에는 비변사에서 선조에게 경상도 좌, 우도에 각각 총섭을 선출하여 일을 분장시킬 것을 건의하는 기록이 있다.

기록에는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비변사가 아뢰기를, '승장(僧將) 유정(惟政)이 지금 경상도에서 승군(僧軍)을 통솔하고 요새를 설치해 방비하는 등 모든 일을 조치하고 있는데, 지방이 넓고 또 한 총섭(總攝)으로는 승군을 징발함에 어려운 일이 많다고 합니다. 좌, 우도에 각각 총섭을 선출하여 승군을 징발하는 일을 분장시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라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사명당 유정 교첩'은 조선실록 기록보다 앞선 자료로 알려졌다.

한편, 표충사 호국 박물관은 '사명당 유정교첩' 기증을 기념하며 2021년 춘계향사 일정과 함께 특별전시를 마련, 공개할 예정이다.

통도사, 국내 최대 화엄산림법회 연다

구랍 15일~내년 1월12일까지 설법전서

국내 최대 화엄법회가 열린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경내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대법회'를 봉행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법문은 오전에만 진행되며 매주 토요일 법성게 기도, 매주 일요일 천도재가 함께 봉행될 예정이다.

입재식에서는 오전 10시 불공에 이어 방장 성파 스님의 입재 법문이 이어지고 이후 도암 스님(전 통도사 율원교수사), 반산 스님(전 쌍계사 강주), 법산 스님(전 동국대이사장), 보광 스님(전 동국대 총장), 용학 스님(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도일 스님(전 송광사 율원장), 덕문 스님(조계종 계단위원), 지안 스님(반야불교연구원장), 선지 스님(전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영산 스님(통도사 염불원장), 수불 스님(안국선원 선원장), 정우 스님(구룡사 회주), 심산 스님(흥법사 주지) 등이 법문한다. 마지막 날에는 방장 성파 스님이 회향 법문을 담당할 예정이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경내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대법회'를 봉행한다. 지난 화엄산림법회 회향일에 대중들이 모인 모습.

한편, 통도사 화엄산림법회는 산자와 영가를 위한 법회로 유명하다. 조상 영가가 법문을 듣고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전국 각지 참가자들은 영가위패를 모신다.

동참금은 영가 1위당 2만원, 생축은 10만원이다. 접수는 통도사 화엄전으로 하면 된다. 055)381-1288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송광사, 출재가가 함께한 동안거 결제 눈길

11월 29일 100일 수행 함께 들어가

승보종찰 순천 송광사(주지 자공)가 동안거 결제를 맞아 참가대중들에게 "스스로를 반조하면서 바깥 외연에 흔들림 없이 안거를 하자"고 당부했다. 겨울 수행을 위해 모인 300여 사부대중은 지난 11월 29일 대웅전과 앞마당에서 경자년 동안거 결제를 봉행하고 100일 간의 수행일정에 들어갔다.

방장 현봉 스님은 결제에 참여한 대중에게 "불법(佛法)의 공부는 비대면(非對面)의 공부이며 밑천이 들지 않는 공부법이다. 왜 그런가? 이미 모든 것이 자기에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반조(返照)하면 텅 비어있으면서도 가득하고 가득하면서도 텅 비어 있는 오묘불가사의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결제에는 출가자를 비롯해 재가불자인 광주전남포교사단(단장 강윤구) 50여 명이 참여해 함께 동안거에 들어갔다.



강윤구 단장은 "포교사는 수행과 포교를 함께 하는 사람이다. 동안거를 맞아 수행을 통해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자 진행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광주전남포교사단은 "지난 하안거에 이어 2번째 결제에 참여했다. 동참자들은 안거대중방에서 참여를 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직장과 가정에서 사경, 염불, 108배 수행 등을 동안거 결제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단종문회, 취봉장학회 창립… 인재불사 실천

12월 2일 장학회 창립법회 봉행

사단법인 대한불교 우담종문회(회장 도홍)는 12월 2일 불곡사 관음전에서 '우담종문 불곡사 취봉 장학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취봉장학회는 2000년 2월 창원 불곡사에서 입적한 회주 취봉 스님의 유훈을 잇기 위해 창립됐다. 이날 취봉장학회는 홍승혜(동국대), 최승준(봉곡중), 김지우(남양초) 등 3명의 학생에게 각 50만 원 총 150만 원을 전달했다.

창립법회에는 우담종문회 회장 도홍 스님, 취봉장학회 대표 묵암 스님 등 창원사암연합회 스님들과 사부대중 60여 명이 동참했다. 행사는 장학회 임원 소개 및 경과보고, 장학금 전달 순으로 이어졌다.

도홍 스님은 "취봉장학회 설립에 도움을 주신 여러 스님과 신도님들께 감사하다"며 "장학회 성금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장학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우담종문회는 12월2일 불곡사 관음전에서 '우담종문 불곡사 취봉 장학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장학회 대표 묵암 스님은 "취봉 스님의 상좌로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도 십시일반 금액을 모아서 도움을 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포교사단 부산 · 개금복지관, '자비용품' 나눔

11월 27일 연탄 등 전달

추운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나눔이 진행됐다.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정분남)과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개금종합사회복지관(관장 류강렬)이 11월 27일 '자비의 동계용품 나누기 기부 전달식'을 진행했다.

나눔을 위해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670명 포교사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았으며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가 100만 원을 기부해 동계 용품 및 연탄이 마련됐다. 기존 나눔 일정은 11월 28일에 예정됐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하루 앞당겨 27일 진행됐고 지역단 임원 및 개금복지관 직원만 참석해 조촐히 개최됐다.

정분남 단장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동계용품 나누기를 통하여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를 기원하고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 불국정토 되길 발원한다"며 "오늘 행사에 동참해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류강렬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코로나19로 기부활동이 많이 위축된 시기이다. 저소득 세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눔과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한편,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11월 30일 코로나 19 소멸을 기원하는 법화경 기도를 입재했다. 릴레이 기도로 이어지며 매일 오후 6시 부산지역단 포교사단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기도일은 총 70일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소원정사. 어려운 이웃에게 통큰 보시행

11월 28일 연꽃향기자비나눔 개최

자비나눔을 통해 지역 불교계의 귀감이 되고 있는 광주 소원정사(주지 도계)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큰 선물을 전달했다. 소원정사에서 운영하는 연꽃향기자비나눔본부는 1월 28일 사찰 앞마당에서 제17회 연꽃향기자비나눔과 제11회 연꽃상 시상식을 봉행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연꽃향기자비나눔에는 전국에서 226명의 불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쌀 20kg 602가마(12,040kg)와 박종원 거사가 기부한 방한복 50벌(2000만원 상당) 전달식 가졌다.



행사에는 도계 스님, 동현 스님(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광주전남어린이청소년불교연합 대표)을 비롯해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이범식 신도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기부한 쌀은 서구청(4000kg), 남구청(4000kg), 빛고을나눔나무(3200kg), 보육원(1000kg), (사)동연(방한복)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 전달식에서 도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많은 불자들이 후원에 참여해주셨다. 올해 17년째 진행하는 연꽃향기자비나눔을 통해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전해지기를 기원한다"고 의미를 말했다.

봉사활동에 대한 시상식인 연꽃상에는 대상 정승연(정진인), 봉사상 김미경(보현화)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흙으로 빚은 아라한의 온기를 만나다

허경혜 작가 나한전, 12월 7~13일 개최

흙으로 담아낸 아라한의 자비와 친숙함을 느껴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허경혜 작가의 '나한(羅漢)' 전시가 12월 7일~13일 부산 서면 영광도서 리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허경혜 작가는 흙으로 빚은 나한상을 1200도 고온에서 구워 옻칠로 마무리했다. 전시될 작품 나한은 일반적으로 사찰에서 볼 수 있는 나한과는 다르다. 흙처럼 편안하고 어머니처럼 따뜻하다. 누구나 편안하게 다가 갈 수 있는 친숙함이 특징이다.

허 작가는 "사찰에서 볼 수 있는 나한은 해학적이면서 약간은 딱딱한 느낌이다"며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은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한량없는 자비의 모습일 것 같아 담아보았다"고 설명했다.

'나한'은 아라한을 팔리어로 표기한 말이며 작품은 총 30여 점이 전시 될 예정이다.

허경혜 작가는 어머니의 사랑과 따뜻함을 주제로 35년 간 활동해 온 중견작가이다. 나한전은 2014년 서울 조계사 나무 갤러리 이후 2번째 특별전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